

### 3. 최근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한국 vs 미국, 유로지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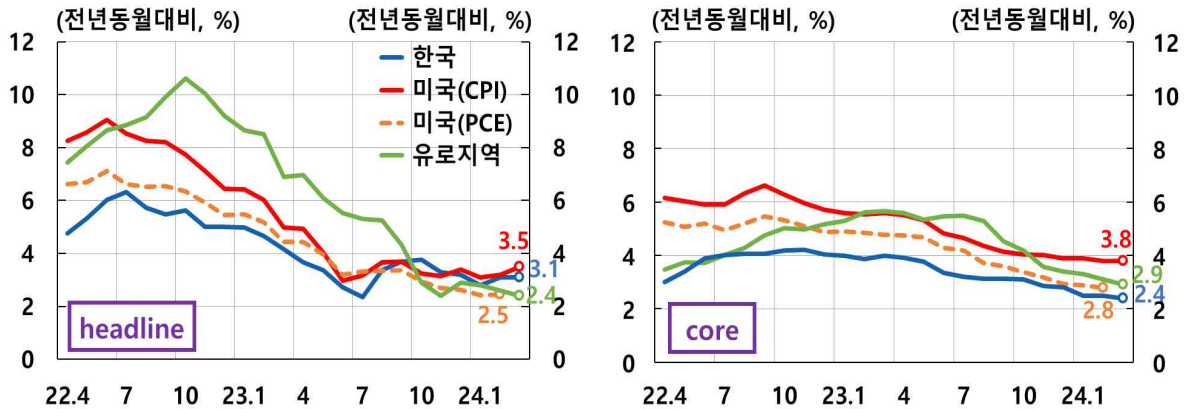
(조사국 물가동향팀)

1.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로지역의 headline 물가상승률은 2022년 정점부터 1년여 동안 기저효과,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빠르게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둔화 흐름이 주춤한 상황이다.

2.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천연가스가격 하락의 영향이 작은 가운데 농산물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최근 headline 상승률의 반등폭이 컸다. 그러나 core 상승률은 미국이나 유로지역에 비해 상당폭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국 headline 상승률은 울퉁불퉁한 모습, core는 완만한 둔화 흐름 지속

<주요국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BLS, BEA, Eurostat

3. 앞으로도 주요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양상은 국제에너지가격 움직임 외에 국가별로 차별화된 물가 동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가 물가·고용 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최근 물가 흐름이 변동성이 높은 유가·농산물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영향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headline 및 core 외에도 기초적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 품목별 물가상승의 확산 정도 등을 바탕으로 당초 전망대로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를 계속 확인해가면서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판단해나갈 것이다.

1)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최근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한국 vs 미국, 유로지역」(24.4.12일)을 참조하기 바란다.